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두 공동대표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당원과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 결론이 나오면 최종적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공천' 여론조사 통과할까

지도부 "지지도율 60% 이상" 일단 우세 선거 완쾌 위기감...의외 결과 나올 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존 여론조사 결과, 기초선거 무공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를 상대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무공천' 찬성 의견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원 여론조사도, 대의원과 진성당원에 일반당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초선거 무공천 지지 비율이 60% 내외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서 기초선거 공천을 다시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외

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완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폭넓게 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은 물론 지지자들이 기초선거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실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기초선거 무공천과 공천의 지지를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9.7%가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정당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질의 문구 등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철회 위한 명분쌓기? 정면돌파 수순밟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無)공천과 관련, 그동안의 강경한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묻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대표가 평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라며 '약속 대 거짓'의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려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무공천' 입장을 되돌릴 수도 있는 이번 결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안 대표는 지난달 26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국민 앞에 드린 약속만이라도 반드시 지키자.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의 길이자,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는 "우리에게는 큰 희생이지만 국민을 위해 과감히 포기하고 더 중요한 국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진정성을 인식하고 우리도 수권정당으로서 믿음직스럽고 느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 입법 관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이 심판이 되어 약속을 지키는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바다로 가자.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공천 입장 철회 배경

기초선거 궤멸 우려

당내 철회 거센 압박

불협화음 정리 공여지책

따라서 이날의 결정은 의견상 '후퇴'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표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와도 같은 '새정치'의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아가 정치인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정계 입문 후 중요 고비마다 급진화하거나 발을 빼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이어서 신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안 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무공천 방침으로 인한 기초선거 궤멸 우려가 컸으며 때문에 당내에서 철회 압박이 강했던 탓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의견 수렴 결과가 '공천'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안 대표의 이번 결정은 '회군을 위한 수순'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안 대표 주변에서는 기초공천을 둘러싸고 간단없이 이어지고

있는 당내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단일 대오로 6·4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겠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나온 처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안 대표의 이번 결정은 회군의 명분이 절대 아니다.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는 창당정신 및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당 목소리가 하나가 돼야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칙과 신념의 일관성에 결정 방식의 민주성을 더해서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을 보면 당 지도부는 무공천이 관철될 것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새정치연합의 진정성과 참 뜻을 살펴주시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극복해 정치를 혁신하고 기득권 정치를 바꾸려는 의지를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당 일각에서는 무공천에 찬성할 가능성이 큰 일반국민 비율을 50%로 깨워낸 것이 사실상 명분 쌓기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도권 기초단체장 환호... 호남권은 떨떠름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

"현역 프리미엄 사라져"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놓고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호남권 기초단체장의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이번 여론조사로 기초선거 공천이 이뤄지기를 확고하게 기대하고 있다.

무공천 여파로 야권의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표를 나눠가질 수밖에 없어 당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모 구청장은 "지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만 기초선거 무공천을 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체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호남지역 기초단체장은 여론조사로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기초선거 공천으로 나타난다면 선거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피 튀기는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컷-오프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구 새정치

연합 측의 통합 정신에 따른 '배려' 요구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무소속 후보 난립에 현역으로서의 조직적 우위를 보였던 기존의 관세를 생각하면 기초선거 공천은 호남지역 기초단체장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모 단체장은 "기초선거 공천을 놓고 지도부가 오락가락하고 있어 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체 지방선거 구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또 약속 뒤집기 수순"...새누리당 맹비난

새누리당은 8일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속을 뒤집기 위한 수순밟기"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표변인은 이날 "짧은 기간 속한 약속 뒤집기로 새정치를 소멸시키더니 마지막 약속을 뒤집기 위한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규 대표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마치 무공천만이 새정치의 근본인 것처럼 말해왔고 이를 명분으로 합당까지 했던 갈지(之)자 행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마치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

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현주 대표변인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현실에서 초래할 문제를 오늘에야 깨닫지 않은 이상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기초공천 유지로 선회하는 이유를 국민과 당원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말을 바꾸는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질의 즐거움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57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공항에서 MU로 떠나는 중국여행!!

상해/항주/신선거/설두산 4일 **799,000**

상해/항주/신선거/설두산/신선거 5일 **869,000**

5월 2일~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출발!!

터키 일주 9일 **2,590,000~**

그리스, 터키 9일 **2,590,000~**

이스탄불, 스페인, 포르투갈 9일 **2,890,000~**

이스탄불, 발칸 9일 **3,19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W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90유로), 싱글차지

아시아항공으로 떠나는 북경 태향산

ALL포함 북경 태향산 5일 **1,050,000**

5/3일 단 하루!!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대만여행

대만 3박4일 **1,23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발발사지(\$30/30분), 101빌딩 전망대(\$35)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299,000**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399,000**

항공 일본고급 료칸 및 특급호텔숙박!! 큐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환영합니다. (별정1종류 드립니다) 주말(목, 금요일은 요금인상됩니다)

2014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배 친선골프대회!!

일시 2014년 6월 18일(수) 13:00~ 참가비 **325,000원** (골프피36홀 + 골프텔 22명 1박(2인1실))

*불포함사항 : 항공료, 그린피 36홀, 골프텔22명(1박, 2인실), 조식 *불포함사항 : 카트비, 캐디비, 음식, 석식, 현지교통비

장소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경기방식 및 진행 : 신데리오 / 샷건
대상 : 국내 및 해외 골프동호인 시상 :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장타왕, 근접상, 행동상
인원 : 160여명(도내 68, 도외 72, 해외 20)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토/일] **무안-계림 힐링투어!! 4/9~6/4, 총 17회 매주 수, 토 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899,000**

풍격 장가계/천문산 4일 **98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949,000**

풍격 장가계/천문산 5일 **1,039,000**

*불포함사항 : 중국단체비(₩33,000), 유류세(₩100,000), 기사&가이드비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당시는 관광진흥법 및 경쟁거래위원회 등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14-2003-1호
*공통조건 :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예상종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엑스규정) 및 일일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견비있을(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